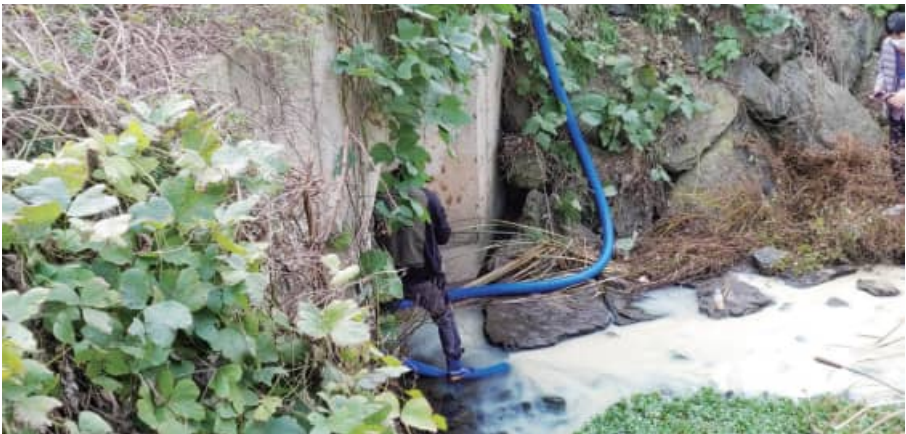


현대위아, 절삭유 유출 ‘환경오염’ 유발



현대위아 서산공장에서 지난 2일 절삭유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나 서산시의 발 빠른 방제 활동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했다.

시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절삭유 탱크의 수위계 고장으로 탱크가 넘치는 상황에서 펌프가동이 중단되지 않아 약 6000리터의 절삭유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오염시키는 사고가 발생

했다.

이에 서산시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 굴삭기 5대, 흡입차량 7대, 살수차 4대 등을 동원 방제작업을 벌였다.

서산시환경대책위원회 김춘수 위원장은 “이 사고는 현대위아의 관리부실에 이은 불량자재(수위계)가 원인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인데도 하천으로 유출됐다는 것은 문제이며, 또



사전대응에 대한 실질적인 사고대응 매뉴얼이 아닌 형식적인 매뉴얼로 인해 키운 사고”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관계기관은 이 같은 사고처리에 대해 전중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 또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서산시환경대책위원회의는 사고 경위와 처리 과정 등에 대

해 면밀히 살피고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오염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유류 오염지역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하고 “오염유발업체에 대한 행정 및 사법처분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금현 기자

충남도, 대한민국·지역 미래발전 이끌 대선 공약과제 발굴

도, 3월부터 대선 공약과제 발굴 시작…지난달 11개 분야 82개 과제 수립
충남이 쌓아온 경험과 고민, 해법 담겨…주요 정당 및 후보자에 전달 예정

20대 대통령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도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 발전을 이끌 대선 공약과제 82개를 발굴했다.

지난 3월부터 대선 공약과제 발굴을 추진해 온 도는 지난달 3개 공약유형(국가·지역·공동공약) 11개 목표를 설정해 공약과제 수립을 마쳤으며, 충남 발전의 원동력이 될 20개의 핵심과제도 별도로 선정했다.

도는 발굴한 과제들이 국가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21세기 대한민국이 직면한 시대적 여건을 위기에서 성공의 기회로 전환, 지역을 넘어 국가와 공동체의 성장과 행복을 선도하는 충남을 구현하겠다는 복안이다.

양승조 지사는 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은 시대를 반영하고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며 “남은 4개월 동안 어떤 미래 비전과 정책을 담느냐가 향후 5년, 나아가 수십년 국가와 지역의 경로를 판가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중저대한 시기에 지역

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대선 공약과제를 제안하는 것은 충남이 작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라며 “오늘 우리가 제안하는 대선 공약과제에는 충남이 그동안 정책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고민, 해법이 담겨있다. 무엇보다 도정을 신뢰하고 충남과 국가의 발전을 염원하는 220만 도민의 바람이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환경해권 중심 도약을 위한 지역공약으로는 △도민안전 △탄소중립 선도 △미래산업 육성 △관광혁신 △균형발전 △교통망 확충 등 54조 6472억 원 규모의 6개 분야 51개 과제를 발굴했다.

구체적으로 도민안전은 재난안전 산업 연구개발단지 구축, 소방산업특화단지 조성 등 7개, 탄소중립 선도는 한화해 수소에너지 메가 조성 등 5개, 미래산업 육성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핵심거점 조성, 충남 첨단투자지구 지정 등 10개 과제다.

관광혁신은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도시 조성, 섬 국제 비엔날레 개최 등 8개, 균형발전은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한화해권 중심도시 육



성, 다기능 KBS 지역방송국 설립 등 10개, 교통망 확충은 충남 서해 관문 국제공항 건설, 국도 38호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및 지방도 603호 국도 승격 등 11개 과제를 제시했다.

도민안전과 관련 도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재난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재난대응 과학기술 역량 강화에서부터 소방산업 육성, 신종 감염병 등 다양한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제안했다.

탄소중립은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생태복원 그린뉴딜 사업 등을 통해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산업 분야는 급격한 속도로 다가오는 미래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와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광혁신은 코로나19 이후 관광트렌드 변화와 지역의 관광자원 특성을 활용해 국내 최고 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는 혁신전망을 추진하고, 균형발전 분야는 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적극 대응해 농산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교통망 확충은 충남혁신도시와 신 행정수도, 충청권 메가시티와 서해안 핵심 관광거점 연계, 수도권 접근성 강화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로 발굴했다.

공동공약 분야는 상생발전을 위한 4개 과제로 서해선-KTX 연결 조속 추진,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 천아평(천안-아산-평택) 순환철도 구축 등 5491억 원 규모다.

양 지사는 “이번에 발굴한 대선공약 과제 모두가 충남의 산학연과 시민사회가 합심해 도출한 실효성 있는 과제”라며 “충남과 도민의 염원을 담은 과제들이 국가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진 기자

괴산군, ‘관광활성화’ 준비 박차

위드 코로나 시대 테마·체류형 관광산업 육성

충북 괴산군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침체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테마·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괴산군 백신 접종 현황은 1일 기준 △1차 34,386명 △2차 32,930으로, 괴산군 인구 37,101명에 대비 △1차 92.7%, 2차 88.8%의 접종률을 기록 하며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기초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군은 침체됐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관광자원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등 테마·체류형 관광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전국적 유명 관광지인 산막이옛길에 모노레일 민간개발사업, 순환형 생태휴양길, 산막이옛길 브랜딩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힐링 관광지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올해 4월에 민간개발사업 투자협약을 맺었으며, 체류형 시설인 모노레일, 쥘라인을 설치·운영해 관광객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괴산군의 76%를 차지하는 산림을 활용한 힐링·체류형 인프라 확충에

도 나선다.

올해 7월 박달산 자연휴양림 착공으로 본격적인 시작을 앞둔 산림복지 단지는 향후 산림레포츠 단지, 치유의 숲, 숲속아영장 등을 순차적으로 조성하며 힐링·체류형 관광지로 키울 계획이다.

또한 성불산 자연휴양림도 지난 8월 ‘성불산 치유의 숲’ 조성을 완료했으며, 지난 10월에는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무장에 나뭇길을 치유의 숲에 추가 조성해 괴산군 대표 힐링명소의 명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수려한 자연환경으로 유명한 화양구곡, 쌍곡계곡, 수옥정 관광지의 관광기반도 강화에 나선다.

지난해 화양구곡 문화 생태탐방로 조성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달빛봄은 화양구곡길 조성사업과 화양동 선비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해 자연생태자원과 문화관광자원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명소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쌍곡계곡은 아름다운 자연과 연계한 생태탐방로를 조성해 사계절 탐방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괴산군,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비해 관광 활성화 준비(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산막이옛길, 성불산 치유의 숲, 쌍곡계곡 소금강, 화양구곡 운영팀)

수옥정 관광지에는 수변산책로와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했으며, 중부내륙철도 괴산역 개통으로 유입되는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수옥폭포에서 조령3관까지 모노레일 설치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괴강관광지 명소화를 위한 괴강관광지 불빛공원과 괴산읍 제물리에서 감물면 오창리까지 달래강

/박철우 기자

대전용운 ‘00린의 딸’지역주택조합

허위 과장 광고 주의

대전시 용운동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설한다며 과장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무차별적으로 모집하면서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대전용운 ‘00린의 딸’은 지난 8월부터 홍보관을 오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지만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유성구에 위치한 ‘00린의 딸’ 견본주택에 가보면 마치 대형건설사가 아파트를 일반분양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느슨한 법망을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서다. 무주택 서민들 중심으로 조합을 꾸려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 취지가 무색하게 ‘조합원 모집 과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통상 주택 재개발은 ‘안전진단→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조합 설립인가’ 뒤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반면 주택지역조합은 조합 설립 과정에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조합 설립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인데도 ‘조합’이라 광고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돈을 받아갈 수 있는 셈이다.

‘00린의 딸’ 특히, 대전 동부권의 미래를 엔터하라. 자연이 준 최고 선물 숲세권을 산다.숲세권에

산다.대전역 역세권 개발 호재.시공사 선호도 아이에스 동서 1위’. ‘평당 800만 원대부터~’.청약 통장 없이 계약가능. 중소형 평형대 공급에 정이라며 마치 건설사가 확 정된 것처럼 전단지지를 만들어 아파트 광고하고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어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은 ‘평당 800만 원대부터 계약금 3000만 원대부터~’ 이란 광고 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해, 일반분양 가격보다 평당 400~600만 원가량 싼 값에 분양받을 수 있다.청약통장없이 계약 가능 하라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사가 선정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주의를 요구 했다.

대전용운 ‘00린의 딸’은 대형주택 건설사 로고와 ‘시공사 아이에스 동서’라며 전단지에 문구를 넣어 허위광고를 넣어 무차별 배부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조합법은 사업주체인 조합이 설립돼야 시공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대전시는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지역 주택조합 가입 전 유의 사항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민준 기자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짱’

학교폭력 NO! 친구사랑 YES!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박주영)는 서산시 관내 초등학교 15개교 75학급, 중학교 6개교 41학급 총 1,800명 대상으로 2021년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각 학교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은 언어폭력예방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대화습관 자가 진단과 언어폭력에 대처하는 의사소통 기술 및 상황별 대처방법을 교육내용으로 구성 진행했다.

언어습관을 점검해 평소 청소년들의 언어 표현을 되돌아보고, 친구와의 갈등상황에서 적절한 언어 전달과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청소년이 쉽게 공감하고 실천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

박주영 센터장은 “올바른 언어 사용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금현 기자

홍성군, 야간경관 명소화로 원도심 활력 스위치 ON

도 2022년 도시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선정

홍성군(군수 김석환)은 홍성을 월계천 일대 야간경관개선사업을 추진,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야간경관 명소화 조성을 통해 원도심 활력을 되찾는 등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도시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월계천 고향의 강’ 야간경관개선사업이 선정돼 사업비 5억 원(도비 1억 5,3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군은 2021년 ‘맑은 물과 문화가 흐르는 홍성천’경관개선사업에 이어 2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값진 성과를 얻게 되었다.

군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홍성천 야간경관개선사업(사업비 12억 9천만 원)을 연계해 ‘나에게 다가온 회복의 빛’이라는 디자인 콘셉트로 홍성을

도심을 관류하는 중심 수변 공간인 월계천의 교량, 산책로 등 주변 주·야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야간 명소를 조성해 색다른 볼거리 제공은 물론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구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합한 허가건축과장은 “홍성천과 월계천을 야간명소화 하기 위해 수립한 야간경관개선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사업대상지를 확대해 나가 경관조명 설치, 하상주차장 용벽 개선, 산책로 수변 녹화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친숙한 환경을 제공하고 구도심에 야간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성진 기자